

관청건물과 건축의 다양성

Public Offices and the Variety of Architecture

대담자/김정신(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설계자/임장렬(성림건축)

Kim Jong-Shin & Lim Jyang-Lyal

일 시 / 1997. 8. 28

장 소 / 성림건축 회의실



대담광경(좌:김정신, 우:임장렬)

김정신 _____ 임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건축전문지를 통해 성림건축의 작품이 여러 번 소개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만 임소장님과 직접 대담하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림건축의 설립 과정과 임소장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임장렬 _____ 1981년말 뜻이 있는 몇몇이 모여 국전 준비를 하던 중 국전이 대전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해는 국전이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부산문화회관 공모가 있어 응모한 것이 다행히 당선되면서 그 다음해 82년에 성림건축을 만들게 된거죠. 지금 생각으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겁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신 _____ 그 후 계속하여 많은 현상 공모에 응모하여 당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작품이며 계획안대로 지어졌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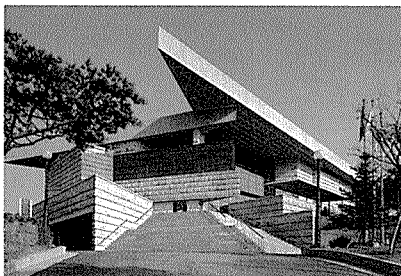
임장렬 _____ 70년대에는 거의 없던 현상공모가 80년 초 부산문화회관 현상공모 이후로 아시안 게임 및 올

림픽 관련 시설로 인해 현상공모가 부쩍 많아졌고 그로 인해 참여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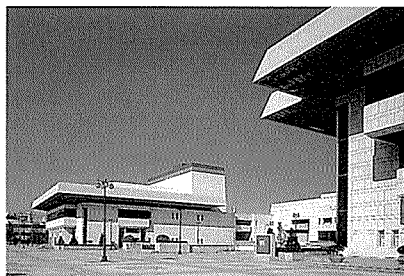
아시아 선수촌 공모에서 우수작에 선정되었을 때 까지만 해도 “현상공모”를 그저 국전 출품한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만 그 뒤 경기도문화회관, 국립수산업연구원 지, 수원시청사 등이 당선되면서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그 뒤 남양주시청사, 하남시청사, 양주군청사와 양주문예회관, 의정부문예회관, 중랑 및 서대문문화회관, 안산 문화회관 등이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 완공 또는 시공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안과는 큰 변경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신 _____ 그런데 그러한 작품들은 지면을 통해 여러 번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작가인 임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건축관이나 소개는 거의 없었던걸로 아는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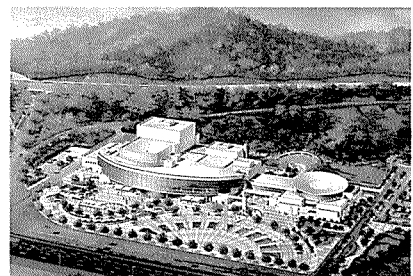
임장렬 _____ 사실 그동안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디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양해 왔습니다. 굳이 이유를 붙인다면 건축에 대하여 아직 한창 배우는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단계도 아니었고, 그저 열심히 작품을



인천시립박물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의정부시종합문예회관

만들다보면 언젠가 작품을 통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어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정신 _____ 그 얘기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동안 하였던 작품이 내세울만큼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작가 자신이 추구코져하는 이상 실현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야 된다는 뜻인지요?

임장렬 _____ 두 가지 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김정신 _____ 지자체와 더불어 시청사, 문화회관 등 신축 붐을 이루고 있는데 아마 임소장님이 가장 많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건물을 통틀어 관청건축으로 본다면 관청건축에 대한 임소장님의 기본 생각부터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또는 부딪힌 벽은 무엇이었는지요?

임장렬 _____ 시작이 그래서인지 문화회관과 시청사 설계는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건물을 거듭 설계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청건물이라 해서 여타 다른 건물과 달리 특별한 생각으로 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몇년사이 관청건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많이 있었고 더욱이 지자체 실시 이후부터 과거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상징적으로, 막연한 전통이라는 요구에서 지역적 맥락 요구를 그 한 예로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건축의 진일보를 위한 자리 매김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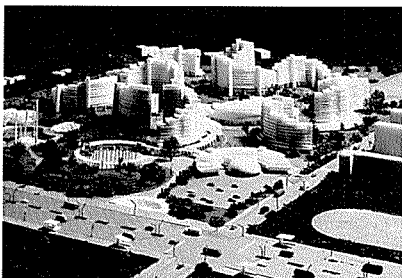
이제 70, 80년도의 이러한 문제들로서 Client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한 타협의 묘안(?)을 작가 본인의 아니게 만들 필요도 없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신 _____ 데뷔작이라 할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은 배치와 조형이 고전적이고 한국적 모티브를 강하게 느끼게 하는 작품인데 반해, 90년대 초의 작품인 인천시립박물관, 남양주시청사, 하남시청사 등 유연한 곡선과 날카로운 사선 등 다소 낭만적이고 다이내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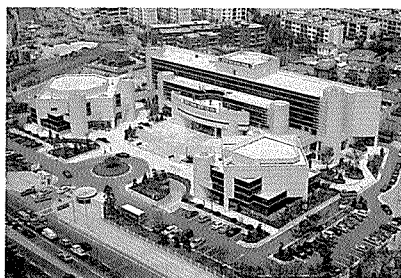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임장렬 _____ 부산문화회관을 설계할 당시 80년 초까지만 해도 한국전통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때였습니다. 부여박물관이나 불란서 대사관, 경북공국립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이 그러했고 부산문화회관 역시 지침상 한국전통적이야 한다는 것이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말 90년초에 들어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고 작품 역시 그러한 외적 요소에 큰 구애없이 작가의 소신에 의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의 90년대의 작품들을 예로 곡선과 직선을 강하게 대비하여 관청사에 시도한 것은 곡선과 직선이 갖는 조형적인 요소 이외에 기존 관청사의 틀을 깨어 보자는 의도에서 시작하였고 그것이 차츰 받아들여지면서 오늘과 같은 관청건물의 변화에 일조하였다 자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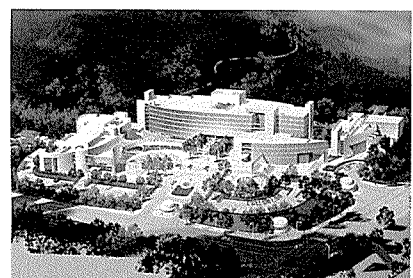
김정신 _____ 소장님의 작품을 살펴보면 주어진 여건을 간단하고 아주 쉽게 풀이한 것 같습니다. 손만 대면 그럴 듯하게 쉽게 형상화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시키는지 설계과정이나 방법론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아시아선수촌 현상설계 우수작



남양주시청사



양주군청사

임장렬 _____ 쉽게 풀이한 것으로 봤더니 좀 섭섭하게 생각됩니다만 사실 많은 어려움과 고심들이 숨어 있습니다.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의 작품대부분이 현상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작품들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의 건물로써 사용자의 편에 서서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작가의 소신과 작품관을 전제로 모든 여건을 판단하고 포용하는 기준이 마련되지만 그러한 것이 전적으로 작가 주관에 의해 결정되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작가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다소 어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건축가 자기분의로 해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또다른 오류를 야기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관청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서부터 시작하고 객관적 관점에서 결론 지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신 _____ 그럼 하남시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청사는 남양주시청사와 같은 시기와 비슷한 규모, 현상설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치와 매스, 형태구성 요소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도 외관의 이미지가 보다 부드럽고 디테일 등이 세련된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청사와 비교하여 이 건물의 중요한 특징을 소개한다면?

임장렬 _____ 한 사람의 작품이 비슷한 것은 건축가들이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자생하여 작가의 정신안에 굳어져 조금씩 변모해가는 자신의 색깔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관청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적 맥락에 대한 해석과 수용이며 또한 시민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 그리고

이용의 편의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프로젝트다 설계당시는 기존 도시의 물리적 맥락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은 허허벌판이었고, 도시계획도 명확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한강 하류에 위치한 하남시의 지리적 요인과 고도로 서의 전통성에서 맥락을 찾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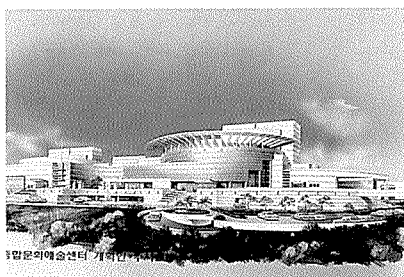
김정신 _____ 그래서 유연한 쌍곡선이 전체 조형을 지배하는 모티브가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임장렬 _____ 강의 흐름, 전통처마 곡선을 현대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이를 역동적인 조형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존 청사가 가지는 경직성을 탈피하고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매스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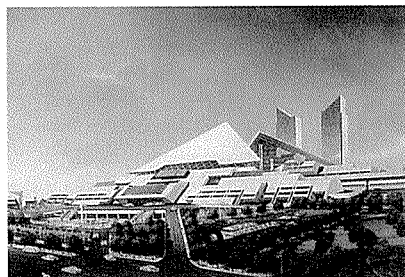
김정신 _____ 하남시청사는 실제 지어질때 항과 진입축이 90도로 바뀌었고, 그리하여 의회동과, 보건소, 민원동의 배치가 좌우대칭적으로 바뀌었을 뿐 다른 것은 그대로 인데 진입 등 문제가 없었습니까?

임장렬 _____ 실시설계에서 배치의 형태가 달라진 것은 부지 서남측에 있는 근린공원과의 연계성과 항에 대한 고려, 그리고 유기적 흐름이 중요시 되어서 입니다. 즉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관공서가 아니라 '시민센터'로서의 역할이 이 안의 배치형태를 변경시키게 한 것입니다. 진입의 문제는 부지의 서북측과 동측의 부출입구로서 충분한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측면에서의 차량출입은 오히려 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근대적인 경직성을 탈피하려는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김정신 _____ 그러나 전면의 근린공원과 그 공원을 통한 보행자의 접근은 동선도 길고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 그 주변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



성남종합문화예술회관 계획안



고속철도 천안역사 계획안



강릉시청사 계획안

만... 현상설계를 통해 지어진 최근의 청사건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지만 가운데 본관, 좌우에 별동을 대칭적으로 배치하고, 중앙에 광장을 두는 형식인데, 이 광장의 성격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설계자는 이를 시민광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지극히 권위적인 모뉴멘탈한 성격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장렬 _____ 우리의 전통 마당은 정해진 기능이 없습니다.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설계당시 고심한 것은 관공서의 광장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볼 수 있는 에워싸인 적절한 크기의 마당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연결회랑(2층 옥외통로)을 두었습니다.

김정신 _____ 그런 의도는 읽혀집니다만 회랑구조의 스케일이나 별동의 진입과 연결 등이 전통적인 마당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동이나 민원동이 중앙광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별도로 전면을 보고 있습니다. 동선과 시각적인 구조도 그렇고, 그러니 중앙광장은 삭막한 그저 비어있는 공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장렬 _____ 별동들도 각자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특히 의회동의 경우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스케일의 문제나 요소요소의 시각적인 문제는 다소 미흡하다고 인정합니다.

김정신 _____ 거칠은 외부공간과 조경계획의 문제는 현상설계의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즉 뚜렷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심사위원 눈에는 띄지 않지만 작고 중요한 것이 무시되는) 도식적인 어프로치가 실시설계에서 보완 발전되지 못하고 미는 경우가 많은데 임소장님의 작품에서도 간혹 보입니다.

임장렬 _____ 굳이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여건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정신 _____ 임소장님이 즐겨쓰는 형태어휘는 원통, 주로 계단실, 원호, 사선 넓은 유리창, 수평띠, 가보(假梁) 등인 것 같은데 조형적으로 비례나 구성, 스케일 감각 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임소장님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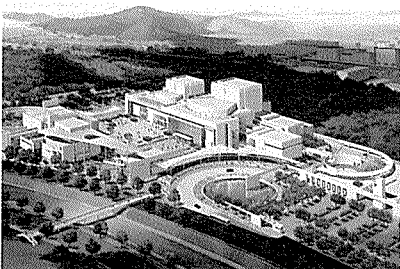
임장렬 _____ 과찬이십니다.

김정신 _____ 정보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건축이나 도시의 개념이 바뀌고 이를 디자인하는 건축가의 작업이나 디자인 경향도 변화되리라 추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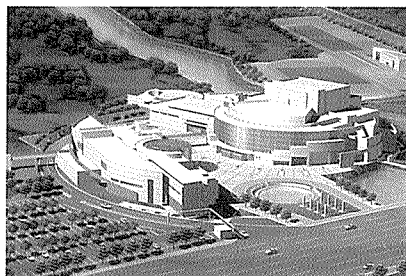
성림건축의 경우 어떤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를 계속하실런지 아니면 별도의 장래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신지?

임장렬 _____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저의 사무실 조직이나 운영체계는 이제까지 저를 정점으로 아뜨리에 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에서 아뜨리에식 운영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욱이 세계화, 정보화 등의 요구사회에 생존키 위해서는 과감한 자기 탈바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십수년동안 해온 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얼마 전부터 이에 역점을 두고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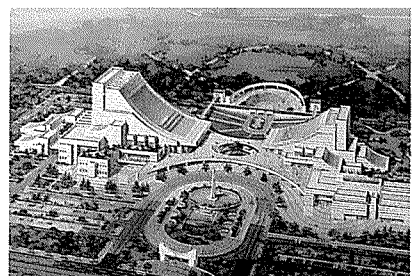
김정신 _____ 앞으로 새로운 변신을 기대합니다.



안산문화예술회관



제주문화예술회관 계획안



한밭종합문화예술회관 계획안